

나의 농민운동 이야기

배 윤 호(집사, 전 기독교농민회 사무국장)

나의 농민운동은 내 나이 32살 되던 해부터 농민운동을 배움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1986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말기가 되도록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만 열심히 하면 자신이 일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21살 되던 해에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길로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배웠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나의 어릴 적 삶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내 어머니는 일곱 살에 또 아버지는 아홉 살에, 어린 나이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농활을 올 때면 TV에서 설명하는 대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일부 대학생들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행하는 전술쯤으로 생각하면서 일제 때 대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과는 정반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들 대



교회에서 농민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학생들이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 내가 꼭 만나서 이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훌륭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에서 농활 온 대학생들이 농활을 받아주는 동네가 없다면서 우리 동네를 찾아왔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반갑던지 이제 내가 이들을 설득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을 우선 동구 밖에 있는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왜 성주로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당시 태풍으로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성주이어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우리 동네에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 학생들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대화 중에 동네 리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동구 밖으로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니 지사에서 경찰관과 면사무소의 직원, 그리고 방위병 3명 등이 나타나서는 다짜고짜로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도와줄 일이 없으니 당장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는 할 일이 많으니 우리 집에서 자면서 수해 복구 작업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면사무소 직원과 경찰관 그리고 리장, 새마을 지도자 등은 이런 일들은 다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니 학생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또, 학생들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에 찍히게 되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랑이를 몇 시간 동안 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포기하고 다른 동네로 가고 말았다. 아무튼 이 날의 일이 나를 오랫동안 고민에 빠지게 하였고 공권력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그 동안의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농민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듬해 농활대가 왔을 때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유치하여 함께 활동하였다. 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날 학생들과 함께 마을 잔치를 열었고 다음날에는 읍내에 나가 농촌활동 보고 회의를 하였는데 나는 그때 함께 나가서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구조적으로 농민들이 잘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때마침 장날을 맞아 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누어주며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 가며 알리기도 하였다.

농활 온 대학생들이 돌아간 후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수면 농민회를 농협 앞마당에서 개최하였는데 성주군에서는 처음으로 면 단위 농민회가 창립되는 자리인지라 지역농민들의 참여와 구경꾼들도 많았고, 경북지역에서의 농민운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때라 경북북부지역에 있는 농민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를 해 주었다. 또 공무원들과 경찰관들도 농민들 숫자만큼이나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면농민회를 창립하자마자 면사무소와 군청에 부당 부역과 부당 잡

부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것을 보내니 다음날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청직원이 아니라 경찰관이 먼저 조사를 하러 나왔다. 그 후 군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부당 부역과 부당 잡부금은 원래 없는 것이며 그동안 부역이나 잡부금은 주민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다시 회의를 갖고 이 내용을 각 동네에 대자보로 작성하여 알리며 그동안 농민들이 부당하게 해온 산림부역과 도로부역에 대한 노임을 계산해 줄 것을 군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군청에서는 사실상 노임은 다 계산하여 리장에게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다시 이를 확인하니 리장들은 군청에서 지급된 노임이란 것이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리장들이 수령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올 때 접대하기도 하고 또 동네에 공적으로 사용될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얼버무렸다. 동네에서 매일 얼굴을 대하는 리장들과 이 문제로 더 이상 다룰 수

없어서 이후부터는 부역이나 잡부금을 없애기로 하고 매듭을 지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부역이나 잡부금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으며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평화를 위하는 일이고 헌신, 희생, 봉사하는 일이며 순종하는 일인 줄로 알아왔는데 그렇지 않고 부역이 부당한 것이며 잡부금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전주 이서 농촌개발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농민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길도 마다 않고 찾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였다. 또 이것을 배우고 오면 바로 동네에서 전달교육을 함으로써 배워왔던 교육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농협에 찾아가서 그동안 농협직원들이 주인인 줄 알고 대출이라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사정사정해야 하던 것을 이제는 주인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다.

날마다 신명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농민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또 나이 많은 농민들은 우리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면사무소 벽보판에 붙이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고 우리들을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농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농민회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공무원들과 농협직원들은 우리들의 허점을 늘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 농민회원 중 한사람이 저들이 만들어둔 함정에 걸려 폭력범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주 장날을 기해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성토하였는데 이 행사로 30여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경북북부지역의 상주, 영주, 의성, 김천 등지의 농민회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성주성당에서 연행자 석방과 부상자 치료를 요구하는 농성을 6일 동안 계속하여 연행자들의 석방과 부상자의 치료를 보장받고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한달 쯤 뒤 농민대회의 책임을 물어 노병식 농민회장을 구속하였다. 나는 이 일로 다시금 제도 권력의 폭력성과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내 속의 의분이 나를 더욱 더 농민운동으로 무장하게 하였다.

그 후 전국농민운동연합(현 전농의 전신)이 건설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농민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농민회가 제2기 조직을 할 때 경북기독교농민회 총무를 맡아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농민운동의 정당성은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운동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터라 일단 교회 안에

서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약간 평안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교령의 안림교회에서 연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농촌교회 안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농민교육을 전개하였다.

지역에서는 당시에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폐교하려고 하여서 주민들과 함께 학교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폐교를 막아 낼 수 있었고 또 벽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항의하여 보건진료소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백지화시키기도 하였다. 또 농협민주화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농민회원들을 농협 대의원으로, 이사, 감사로 진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물론 농산물수입개방반대, WTO 협상반대, 쌀값보장운동 등등 크고 작은 운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에 두 명의 농민동지가 구속된 상태에서 성주군 공정 감시본부장을 맡아서 대구에서 지원 온 대학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그동안에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소식을 드린 후 다시금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학교 살리기, 우리 고장 살리기 범민단 대책위원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끊임없이 닿지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릴 수 있게 힘을 얻을 많은 사람으로서 먼저 기쁘게 생각하며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지난 8월 29일 금수면사무소에서 학부모와 대책위, 자문위원간의 연석회의에서 우리 고장의 학교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관리과장도 학교가 계속 존속되도록 도교육위원회에 건의하였는데, 건의한 공문서의 내용을 학부모와 대책위원 앞에서 읽어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금수면엔 어떠한 뜨거운 성원과 절여의 결과로 얻어진 결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후시라도 학교가 다시 폐교의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범민단적인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수국민학교는 이렇듯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 학년을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록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복식수업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리한 수업 여건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장구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아니라 인근학교에서는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중앙학교 등을 실시하므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 40여명과 함께 밤을 새우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구나 성주 또는 가천 등에 있는 학교로 취학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금수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개선은 학교당국과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학부모나 지역이 뜻있는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문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후원인각부그리고 졸업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 6일

우리 학교 살리기, 우리 고장 살리기 범민단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배 운 호

금수국교 옥실회장 이 상 희

후원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을: 장기호, 도광만, 이교민, 이수경, 홍영숙, 노석환,

이상희, 김성수, 익명을 요구한 금수국교출업생 8명 등

후원성금 접수: 전화: 733114-51-003251 해곡읍 배운호

※ 후원금은 학교발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폐교 반대를 위해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단

투표소와 투표함을 지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있었던 리장들의 수고비에 속하는 동세를 아직도 농촌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처음 농민운동 시작하던 때에 한 동네에서 안면 때문에 시정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남아 농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당시에 폐교반대로 지켜내었던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폐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역시 몇 년 후 폐지되고 군 보건소에 통합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농민운동을 하면서 멀리 바라보지 못했던 근시안적 운동방법과 올바른 대안을 설정하고 요구하지 못했던 점이 반성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농민운동을 한다면서 교회생활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선민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먼저 교육을 받거나 알게 된 내용이 있으면 지역에 돌아와서 전달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서서 도와주었던 일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세에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많이 안다는 자세로, 지도하는 자세로 해 온 것임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이러한 농민운동의 중심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나의 한계이며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동안 농민운동을 하면서 내게 행동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양주석 장로님, 안순봉 장로님을 생각하고, 가까이에 계신 김영원 장로님, 김성순 장로님, 오정면 장로님, 전남의 배종열 장로님과 최병상 장로님, 충남의 이봉구 장로님, 오재환 장로님 등은 늘 내 마음속의 스승으로 남아 있다.

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단결음에 달려와 도움을 주었던 구미의 김종길 동지(전 경북기농 총무, 현 구미경실련 정책실장) 상주의 오덕훈 동지, 지금은 지척에 살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최진국 동지 등은 지금도 내 삶의 사표(師表)가 되고 있다.

지금도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은 내가 살고 있는 경북 성주에서도 교회가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는 자세로 진정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 농민들이 오늘날 산업사회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겪는 모순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민족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농민교회 공동체를 보는 것이다.

산업사회와 함께 무너진 가족구조가 다시 복구됨으로 노인문제와 자녀교육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그럼으로써 해체된 가족농 구조가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농촌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료함인데 이를 손자나 손녀의 훈육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노인들의 무료함과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교육문제 역시 조부모님들의 사랑이 담긴 훈육이 그 어떤 조기교육보다 인간성, 사회성, 개발에 유익할 것이다.

나는 1991년에 농지를 팔아서 지역의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였다. 당시에 여론은 아주 중요하였다. 그래서 그 해에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우리의 입장을 자막으로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이제는 유선방송을 통한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TV가 인간에게 해롭다는 생각으로 얼마 전 나는 유선방송사를 처분하였다.

그리고 가야산 자락에 농장 터를 잡아 우선 식구들을 위한 자급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 또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녹색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농사는 사랑의 에너지로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집의 채소는 단맛과 고소한 맛이 있다.

땅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병들면 약으로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보다 먼저 병든 땅을 고쳐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병든 땅을 고치는 일을 하려고 한다. 農